

연구논문

주희와 이황 봉향 서원과 사제(賜祭)

한재훈

성공회대학교 교수, 한국유가철학 전공

kjydist@hanmail.net

- I. 여는말
 - II. 주희 봉향 서원의 사제
 - III. 이황 봉향 서원과 사제
 - IV. 맺음말
-

I. 여는말

조선 왕조에서 창건되기 시작한 한국의 서원(書院)을 중국의 서원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점은 공자(孔子)와 안자(顏子)·증자(曾子)·자사(子思)·맹자(孟子) 등 선진유학의 선성들이나 주돈이(周敦頤)·장재(張載)·정호(程顥)·정이(程頤)와 주희(朱熹) 등 송대의 선현들을 봉향하는 서원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문묘(文廟, 성균관이나 향교의 대성전)에 이들을 모시고 춘계와 추계의 중월 상정일에 석전을 봉행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서원의 향사는 대체로 문묘의 석전(釋奠)을 피해 춘계와 추계 중월의 중정일 또는 하정일에 봉행함으로써 차이를 두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앞서 언급한 선성이나 선현 및 백이(伯夷)·숙제(叔齊)와 제갈량(諸葛亮) 같은 인걸들과 관련이 있는 지명이 어느 지역에 있으면 그곳에 서원 또는 영당(影堂)을 세우고 제향을 지내기도 했다.

대한제국 시기인 1908년(융희 2)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¹에 따르면, 조선에서는 전국적으로 주희를 봉향한 서원 또는 영당이 25곳이고, 이황을 봉향한 서원은 31곳이다. 이 가운데 4곳의 서원에서는 주희와 이황을 함께 봉향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글에서는 주희와 이황을 봉향한 서원들의 개요와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이들 서원에서 사제(賜祭)를 거행했는지 여부와 거행했다면 어떻게 거행되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그동안 서원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으로, 조선시대 서원 연구의 기초를 다지는 의미가 있다. 특히 조선의 수서원(首書院)이자 이황을 봉향하는 대표 서원으로서 1871년(고종 8) 서원 훼철령에도 훼철되지 않았던 도산서원(陶山書

1 『증보문헌비고』는 조선에서 1770년(영조 46)에 처음 집성된 『동국문헌비고』와 1790년(정조 14)에 증보된 『증정동국문헌비고』를 이어 개찬된 掌故의 類書이다.

院)의 『사제일기(賜祭日記)』 2편에 대한 분석과 소개 역시 서원의 제향의례를 연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주희 봉향 서원의 사제

1. 주희 봉향 서원의 개요와 특징

『증보문헌비고』(1908)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세워진 서원이나 영당 가운데 주희(朱熹, 1130~1200)를 봉향한 서원은 20곳이고 영당은 5곳으로, 모두 25곳이다. 이들 가운데 주희만을 단독으로 봉향한 서원이 2곳이고, 주희와 다른 중국의 유현(儒賢)을 함께 봉향한 서원이 3곳이며, 나머지 20곳은 주희를 주벽(主壁)으로 하고 한국의 유현들을 배향한 서원들이다. 그 가운데 주희와 이황(李滉, 1501~1570)을 함께 봉향한 곳은 4곳이다. 한편, 이들 서원과 영당을 지역별로 분류하면 경기도(1), 충청도(7), 전라도(3), 경상도(2), 황해도(10), 평안도(2)로 황해도가 월등하게 많고 그다음으로 충청도가 많다. 또한 이들 가운데 사액(賜額)된 서원은 15곳이다. 그러나 이들 서원과 영당은 모두 1871년(고종 8) 서원훼철령에 따라 훼철되었다.²

주희를 봉향한 서원이나 영당을 검토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주희를 봉향한 서원은 주로 주희의 생장이나 가계 또는 임관 및 사적과 관련이 있는 지명을 가진 곳에 건립되었다. 예를 들면, 주희만을 독향

2 『增補文獻備考』 권211~213, 「學校考」(10) 各道祠院 참조. 이에 관한 자료를 표1로 정리했다.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고금서원변증설」에도 주희 봉향 서원이 수록되어 있으나, 『증보문헌비고』에 비해 서원 4곳(회암서원, 자양서원, 취봉서원, 경현서원)과 영당 3곳(성전영당, 용호영당, 신안영당)이 누락되어 있다.

(獨享)으로 모신 전라도 함평의 자양서원(紫陽書院)과 평안도 정주의 신안서원(新安書院)이 대표적이다. 자양서원은 그 지역에 있는 자양산(紫陽山)과 그 아래 무이계(武夷溪)라는 지명으로 인해 세워졌다. 기록에 따르면, 1779년(정조 3) 전라도 유생 박하진(朴夏鎭) 등 273명은 연명으로 상소문을 올려 “『함평현지(咸平縣志)』를 살펴보면, 이 지역에 주희의 사당이 있었으나 전란으로 소실된 것을 나중에 다시 지으면서 송시열(宋時烈)을 배향했다”라고 하면서 이곳에 사액해 줄 것을 청했지만, 정조는 “물러가 학업을 닦으라”는 비답을 내린 일이 있다.³ 비답의 내용으로 보아 곧바로 사액이 되지 않는 않았으나 나중에는 사액이 되었던 것 같다.⁴ 중요한 것은 이들 유생이 “자양과 무이라는 지명이 우연은 아니다”라는 점을 논거로 제시한 것이다. 자양서원뿐만 아니라 평안도 정주의 신안서원도 이곳의 옛 지명이 주희의 관향인 신안과 같다는 이유로 서원을 세우고, 이곳에 사액이 되었다.

정주를 옛날에는 신안이라 칭했다. 임진년(1712, 숙종 38)에 이 고을 선비들이 “주호(州號)가 서로 부합하다”라면서 주자의 서원을 세울 것을 의논하고, 임장서원에 경건하게 걸었던 영정을 모사해 왔다. 병신년(1716, 숙종 42)에 원액(院額)

-
- 3 『日省錄』 正祖 3년(1779) 7월 27일, “[綱] 全羅道儒生朴夏鎭等二百七十三人上疏 請咸平 縣朱文公祠重構 配文正公宋時烈 賜批 [目] 疏略曰 臣等謹按咸平縣志云 縣東三十里紫陽山下武夷溪上 有宋臣朱文公之祠 蓋自 祖宗時所嘗虔奉者 而間經兵燹 祠板俱燼 遺礎尙存於荒墟豐草之中 乃者土人 因其遺址 重加構葺 棟宇粗成 而以其處地遐遯 土俗愚陋 未及上聞於朝 故不敢備儀揭板 而只奉朱文公遺像 配以本朝文正公宋時烈之影本 而春秋以瞻禮焉 嗚呼 文公 闖人也 先正 朝鮮人也 時代已五百有餘年 而地之相遠 亦數萬里矣 雖然本縣卽我國之南閩 而先正之所嘗經過往來之所也 地名既同於紫陽 武夷 則意若默契曠感 而有不偶然矣 配隅之禮 其可已乎 伏願 特許院享 仍賜華扁 命復舊規 爲士林之標準 此誠吾道之大幸也 批以退修學業”.
- 4 서원이 언제 사액이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다음의 기록에서 이 서원이 사액되었다가 나중에 훼손되었음을 알 수 있다. 崔益鉉, 『勉菴先生文集』 권1 「別金子元」, “千載紫陽月隨人到海南 博聞加鍊熟 主敬更沉涵 好會顏纔解 離情口欲含 長風宜利涉 無計駐征驂【咸平有山名紫陽 舊享朱、宋兩先生 賜額紫陽書院 近年同人毀撤中】”.

이 하사되었다. 신안의 동문 오른쪽, 향교의 동쪽에 있다.⁵

이 인용문에 등장하는 입장서원은 경기도 연천현 무이촌(현 연천읍 동막리)에 있던 서원이다. 이곳은 기묘사화(1519)를 피해 은거한 임계중(任繼重, 1481~1543)이 후학을 가르치던 곳이었는데,⁶ 1700년(숙종 26)에 이 지역 유림의 공의로 주자서원(朱子書院)을 세웠고, 1713년(숙종 39)에 입장서원으로 사액되었다. ‘입장(臨漳)’이라는 원액이 내려진 까닭은 장주천(漳州川)이 이 지역을 흐르기 때문인데, 장주는 주희가 지사를 지내면서 백운암서원(白雲巖書院)을 창건한 곳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무이수(武夷水)와 후무이(後武夷)라는 곳도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선비들이 주희의 진상(眞像)을 봉안하는 서원을 세웠던 것이다.⁷ 특히 이 서원에 정조는 자신이 직접 찬정한 『어정양현전심록(御定兩賢傳心錄)』⁸의 등본을 하사하여 소장하게 했다.⁹ 황해

-
- 5 『薊山紀程』 권1 「出城○十一月」, “新安書院[定州古稱新安 康熙壬辰 邑儒以州號之相符 議建朱子書院 移模臨漳揭虔之本 丙申賜院額 在新安東門之右 鄉校東畔”.
 - 6 최강현, 「臨漳書院復元建立事蹟碑」(1998, 경기도 연천군 동막리 입장서원) 참조.
 - 7 『正祖實錄』 正祖 2년(1778) 7월 13일, “京畿儒生鄭善述等上疏曰 漣川之臨漳書院 卽朱夫子右享之所也 川號漳州 水名九曲 又有所謂後武夷者 故漣之士購得朱夫子眞像 設院而奉安之”; 『日省錄』 正祖 19년(1795) 7월 11일, “[目] 臣等竊伏覩漣川縣 臨漳里有朱夫子書院 肇創在肅廟朝己丑 而賜額在於癸巳 蓋取地號漳州村稱武夷 而九曲清流 宛然同符於朱子故里也”.
 - 8 『御定兩賢傳心錄』은 주희와 송시열의 문집 속에서 心法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여 편찬한 책으로, 1774년(영조 50) 정조가 동궁이었을 때 李始源 등에게 편찬을 명해 1795년 8권 4책의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1856년(철종 7)에는 중간본이 간행되었다. 권두에 정조의 御製 서문이 있고 이시원의 「奉教書」가 있다.
 - 9 『日省錄』 正祖 19년(1795) 7월 11일, “[綱] 幼學權瑞應等九十四人疏請先正文正公宋時烈配食于臨漳書院 賜批 仍下御定兩賢傳心錄四册 命誦讀服習 無替申諭之意”; 『內閣日曆』 권321, 純祖 6년(1806) 10월 1일, “兩賢傳心錄 卽我先大王御定手編之書 而尊慕乎兩賢學術之純正 曠感乎兩賢心法之相傳 道德光輝 有是書而益著于後世 年前因一儒生請享之疏 特以臚本賜疏儒藏奉于臨漳書院者也”.

도 황주에 있었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¹⁰ 역시 천주산 아래 백록동이 있고, 남쪽에는 회암(晦庵), 서쪽에는 한천(寒泉), 북쪽에는 운곡(雲谷)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남강(南康)이라고 불린 데서 연유했다.¹¹

둘째, 이들 서원이나 영당은 학파적으로는 율곡학과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지역적으로는 기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주희를 봉향한 서원이나 영당들 가운데 황해도가 10곳, 충청도 7곳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황해도 해주는 이이(李珣, 1536~1584)의 처향으로, 이이가 한때 이곳에 거주했기 때문에 이곳의 지명인 석담(石潭)이 그의 또 다른 호로 불렸다. 이이는 「해주향약(海州鄉約)」(1577, 선조 11)을 제정했을 뿐 아니라, 같은 해에 이 지역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격몽요령(擊蒙要訣)』을 짓기도 했다. 특히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까지 이이의 후손들은 이곳에서 200여 년 동안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다.¹² 한편 충청도는 율곡학과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김장생(金長生, 1548~1631)과 그의 아들인 김집(金集, 1574~1656) 그리고 뛰어난 문인인 송시열(宋時烈, 1607~1689)·송준길(宋浚吉, 1606~1672) 등의 고향으로 율곡학과와 본진이다. 이 학파를 지역으로 분류할 때 기호학과라고 하는데, 이들 두 지역에 경기도(1곳)와 전라도(3곳)까지 합하면 주희를 봉향한 서원이나 영당 25곳 가운데 21곳이 기호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주희를 주벽(主壁)으로 모신 서원이나 영당 가운데 대부분이 율곡학과 인물들을 배향하고 있다. 전체 25곳 가운데 율곡학과 인물들을 배향한 데

10 ‘白鹿洞書院’이 ‘白麓洞書院’으로 표기된 문헌도 있다. 예를 들면, 『燃藜室記述』別集(4) 「祀典典故」가 대표적이다.

11 『輿地圖書』「黃海道·黃州牧」, “白鹿洞書院 在州東十里 天柱山下有白鹿洞 南有晦菴 西有寒泉 北有雲谷 其山名洞號亦我東方一南康也”.

12 송의호, 「선비 정신의 미학(49)」 겨레의 스승 율곡 이이, 《월간중앙》, 2020년 3월 31일.

표1-주희 봉향 서원(영당)

순서	서원명	지역	창건 연도	사액	봉향 인물
▣ 주희 독향(獨享) 서원					
1	자양서원 (紫陽書院)	전라도 함평	1726(영조 2)	X	[주] 주희
2	신안서원 (新安書院)	평안도 정주	1712(숙종 38)	1716(숙종 42)	[주] 주희
▣ 주희와 중국 유현 병향(並享) 서원(영당)					
3	삼천서원 (三川書院)	전라도 용담	1667(현종 8)	1695(숙종 21)	[주] 안자, 정호, 정이, 주희 [배] 제갈량
4	천곡서원 (川谷書院)	경상도 성주	1528(중종 23)	①1573(선조 6) ②1607 (선조 40)	[주] 정이, 주희 [배] 김광필, 이언적, 정구, 장현광
5	용호영당 (龍湖影堂)	전라도 무주	1745(영조 21)	X	[주] 주희, 여대림
▣ 주희와 한국 유현 병향(並享) 서원(영당)					
6	임장서원 (臨漳書院)	경기도 연천	1700(숙종 26)	1713(숙종 39)	[주] 주희 [배] 송시열
7	운곡서원 (雲谷書院)	충청도 충주	1661(현종 2)	1676(숙종 2)	[주] 주희 [배] 정구
8	충현서원 (忠賢書院)	충청도 공주	1581(선조 14)	1625(인조 3)	[주] 주희 [배] 이존오, 이목, 성제원, 조헌, 김장생, 송준길, 송시열
9	도동서원 (道東書院)	충청도 목천	1649(인조 27)	1676(숙종 2)	[주] 주희 [배] 김일손, 정구, 황중해
10	회암서원 (陶庵書院)	충청도 덕산	1709(숙종 35)	X	[주] 주희 [배] 이담, 이흠, 조극선
11	백록동서원 (白鹿洞書院)	황해도 황주	1588(선조 21)	1660(현종 2)	[주] 주희 [배] 김광필, 이이
12	비봉서원 (飛鳳書院)	황해도 연안	1596(선조 29)	1682(숙종 8)	[주] 주희 [배] 최충, 김광필, 이이, 성훈, 박세채

순서	서원명	지역	창건 연도	사액	봉향 인물
13	용암서원 (龍巖書院)	황해도 장연	1708(숙종 34)	1721(경종 1)	[주] 주희 [배] 이이
14	취봉서원 (鷲峯書院)	황해도 안악	1589(선조 22)	1697(숙종 23)	[주] 주희 [배] 이이
15	경현서원 (景賢書院)	황해도 재령	1655(효종 6)	1695(숙종 21)	[주] 주희 [배] 이이
16	봉암서원 (鳳巖書院)	황해도 은율	1613(광해군 5)	X	[주] 주희 [배] 김광필, 이이
17	주문공서원 (朱文公書院)	평안도 선천	1701(숙종 27)	X	[주] 주희 [배] 이이
18	종회당영당 (宗晦堂影堂)	충청도 회덕	1697(숙종 23)	X	[주] 주희 [배] 송시열
19	집성사영당 (集成祠影堂)	충청도 예산	1708(숙종 34)	X	[주] 주희 [배] 송시열, 권상하
20	성전영당 (星田影堂)	충청도 진잠	1712(숙종 38) 1738(영조 14)	X	[주] 주희 [배] 송시열
21	신안영당 (新安影堂)	경상도 영덕	1702(숙종 28)	X	[주] 주희 [배] 송시열

▣ 주희·이황 병향(並享) 서원

22	소현서원 (紹賢書院)	황해도 해주	1578(선조 11) 1604(선조 37)	1610(광해군 2)	[주] 주희 [배] 조광조, 이황, 이이, 성혼, 김장생, 송시열
23	정원서원 (正源書院)	황해도 신천	1588(선조 21)	1710(숙종 36)	[주] 주희 [배] 조광조, 이황, 이이
24	봉강서원 (鳳岡書院)	황해도 문화	1656(효종 7)	1675(숙종 1)	[주] 주희 [배] 조광조, 이황, 이이
25	도동서원 (道東書院)	황해도 송화	1605(선조 38)	1698(숙종 24)	[주] 주희 [배] 조광조, 이황, 이이

주: 1) [주]: 주향(主享), [배]: 배향(配享)

2) 이 표는 『증보문헌비고』에 수록된 순서(지역별)에 따라 정리한 것임.

가 17곳으로, 7곳에서만 퇴계학파의 인물들을 배향한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많다. 퇴계학파의 인물을 모신 7곳 가운데서도 4곳은 이황과 이이가 함께 배향되어 있으며, 이때 이황은 조광조(趙光祖, 1482~1519)와 함께 율곡학과 이전의 선유로 배향된 것일 뿐 퇴계학파와는 무관하다. 특히 이 4곳이 황해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편, 이들 17곳 가운데 이이만 단독으로 배향된 곳이 4곳이고, 이이의 재전 제자인 송시열만 배향된 곳 역시 4곳이나 된다. 이는 이황만을 배향한 곳이 전무하고, 1곳에서만 이황의 문인인 정구(鄭誄, 1543~1620)를 배향한 것과 크게 대조된다. 이러한 정황은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들 서원이나 영당이 대부분 기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과 연동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2. 주희 봉향 서원의 사제

주희를 봉향한 서원 중에 사제(치제)를 봉행한 곳으로는 4곳이 확인된다. 특이한 것은 주희만을 단독으로 봉향한 서원 중에 치제가 하사된 곳이 없다는 점이다. 그것은 아마도 주희가 성균관이나 각 지방의 향교에 모셔져 있어서 석전을 봉행하기 때문일 것이다. 서원 단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희만을 위한 치제문으로는 「임장주자서원선액치제문(臨漳朱子書院宣額致祭文)」이 유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 연천의 임장서원(臨漳書院)은 1801년(순조 1) 송시열을 배향하기 전까지는 주희만을 단독으로 봉향하던 곳이었고, 이 치제문은 1713년(숙종 39) 이곳이 ‘임장서원’으로 사액되면서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치제문의 내용이 오로지 주희에 집중되어 있다.¹³ 이는 역시 주희와 한국의 유현들을 함께 봉향하고 있는 비봉서원(飛鳳書院)의 사례와 비교된

13 李觀命, 『屏山集』 권8 「臨漳朱子書院宣額致祭文」.

다. 「비봉서원치제문」에는 주벽인 주희뿐만 아니라 배향되어 있는 최충(崔冲, 984~1068)·김굉필(金宏弼, 1454~1504)·이이(李珣, 1536~1584)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언급되어 있다.¹⁴ 이 치제문은 그 내용으로 보아 1682년(숙종 8) 사액 당시 내려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1696(숙종 22)에 추가로 배향된 성혼(成渾, 1535~1598)과 박세채(朴世采, 1631~1695)에 관한 내용은 치제문에 없다.

주희를 봉향한 서원 중에 가장 많이 사제(치제)가 내려진 곳은 황해도 해주 소현서원(紹賢書院)이다. 이이가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1578년(선조 11)에 은병정사(隱屏精舍)를 창건하면서 공자를 주벽으로 하고 정호(程顥, 1032~1085)와 정이(程頤, 1033~1107)를 배향했던 주희의 창주정사(滄州精舍)를 모방하여 주희를 주벽으로 하고 조광조와 이황을 배향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구상은 생전에 실현되지 못하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인 1586년(선조 19)에 그의 유지를 받든 문인들에 의해 주자사(朱子祠)가 세워지면서 실현되었다. 1593년 왜란으로 인해 은병정사가 전소되자, 이를 재건하려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이도 주자사에 배향되었고, 은병정사는 1604년 재건되었다. 1610년(광해군 2)에 소현서원으로 사액된 이후 『율곡집』은 물론 『격몽요결』과 『성학집요(聖學輯要)』 등이 이곳에서 차례로 간행되었다. 이후 성혼(1661, 현종 2), 김장생(1717, 숙종 43), 송시열(1781, 정조 5)이 차례로 추배되었다.¹⁵ 17세기 후반 이이가 문묘에 종사되면서 선정(先正)으로 위상이 격상되고 아울러 『성학집요』가 경연의 교재로 채택되면서 소현서원의 위상도 국가 단위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특히 정조는 1781년(정조 5)과 1783년(정조 7) 등 최소 두 차례 이상 직접 치제문을 지어 보내면서 사제(치제)를 명

14 朴泰淳, 『東溪集』 권7 「飛鳳書院致祭文【代作】」.

15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경동, 「조선시대 해주 소현서원의 운영과 위상」, 『한국사상사학』 61(2019) 참조.

했다.¹⁶ 최소 두 차례라고 하는 이유는 입장서원과 비봉서원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액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제(치제)를 하기 마련인데 소헌서원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희를 봉향한 서원 중에 또 한번의 사제(치제)를 확인할 수 있는 황해도 장연의 용암서원(龍巖書院) 역시 1721년(경종 1)에 사액되면서 사제(치제)가 함께 내려졌다.¹⁷

주희를 봉향한 서원에 내리는 치제문의 형식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서 소개한다. 입장서원이 사액되기 1년 전인 1712년(숙종 38)에 특진관 민진원(閔鎭遠, 1664~1736)은 다음과 같이 계주했다.

연천 입장서원 치제에 제관이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문의 머리말에 “국왕이 신하를 보내 주모(朱某)의 영(靈)에게 유제(諭祭)하노라”라고 썼습니다. 입장은 주자의 서원인데 본조인에게 치제하는 형식으로 쓰는 것이 온당치 않은 듯합니다. 또 계성사(啓聖祠)와 선무사(宣武祠)¹⁸의 축문에서는 “조선국왕은 삼가 신하 아무개를 보내 감히 밝게 고합니다”라고 하였으니, 마땅히 이 형식에 의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대신들도 “밝게 고합니다[昭告于]” 아래에 “송회국주문공(宋徽國朱文公)”이라고 써야 한다고 했다. 이를 반영하면 “조선국왕은 삼가 신하

16 관련 치제문은 『弘齋全書』 권19「紹賢書院致祭文」과 권20「紹賢書院致祭文【癸卯】」이다.

17 李德壽, 『西堂私載』 권4「龍岩書院記」, “上卽位之元年辛丑 海西長淵府儒生金兌珽等 詣闕上言 故文成公李珣嘗按察海西 又嘗卜居海之石潭 其築節若杖屨 固嘗屢及本府 而若所謂龍岩 則尤其所撫玩倘佯者 一方之士 蓋嘗私糶俎豆之所 而府之南 有武夷山 其名又適符園中 遂以宋之朱子主享 而配以文成 願得比石潭宣額 上允之 以是歲八月 遣禮官 賜祭 賜號龍岩書院”.

18 계성사는 문묘(대성전)에 모신 다섯 성인의 아버지, 곧 齊國公 孔氏, 曲阜侯 顔氏, 泗水侯 孔氏, 萊蕪侯 曾氏, 邾國公 孟氏를 모신 사당으로, 대성전 서북쪽에 1701년(숙종 27)에 완공되었다. 선무사는 임진왜란 때 원병을 이끌고 참전했던 명나라 장수 刑玠와 楊鏞를 모신 사당으로, 매년 음력 3월과 9월 中丁日에 제사를 지냈다.

아무개를 보내 유송회국주문공(有宋徽國朱文公)에게 감히 밝게 고합니다”라고 축문의 형식을 정하라는 것이다. 임금은 신하들의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오늘부터 시작하여 영원토록 정식으로 삼으라”라고 하면서, “이번 치제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면 고쳐 쓴 축문을 속히 내려보내야 할 것”이라고 명했다.¹⁹

Ⅲ. 이황 봉향 서원과 사제

1. 이황 봉향 서원의 개요와 특징

『증보문헌비고』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세워진 서원 가운데 이황을 봉향한 서원은 모두 27곳으로, 주희를 봉향한 서원이나 영당을 합한 25곳보다 많다. 이 27곳에 앞서 살펴본 주희와 이황을 함께 봉향한 4곳을 더하면 이황을 봉향한 서원은 31곳으로 늘어난다.²⁰ 27곳의 서원 가운데 이황만을 단독으로 봉향한 곳은 4곳이고, 나머지 23곳은 이황과 다른 한국의 유현들을 함께 봉향한 곳들이다. 이들 23곳 가운데 이황만을 주벽으로 하는 서원은 13곳이고, 다른 유현들과 함께 주향으로 모셔진 곳은 10곳이다. 이황과 함께 주벽으로

19 『春官通考』(39) 「吉禮·院祠二·[肅宗代]」, “特進官閔鎮遠啓曰 漣川臨漳書院致祭 祭官既已發行 祭文頭辭 書以國王遣臣諡祭朱某之靈云 臨漳乃朱子書院 而以本朝人致祭之例書之 似未安 且啓聖宣武兩祠祝文 稱朝鮮國王謹遣臣某敢昭告于云云 則今當依此例 而諸大臣皆以爲昭告于下 當日有宋徽國朱文公宜矣 上曰 自今爲始 永爲定式 而致祭日期可及 則改書祝文 罔夜下送可也”.

20 이 논문에서는 『증보문헌비고』에 따라 퇴계를 봉향한 서원을 31곳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퇴계를 봉향한 서원은 경상도 사천에 있는 龜溪書院을 빼고 30곳이라고 논증한 연구도 있다. 이병훈, 「퇴계 제향 서원의 건립 추이와 위상 변화」, 『민족문화논총』 91(2025), 192쪽.

표2-이황 봉향 서원

순서	서원명	지역	창건 연도	사액	봉향 인물
<p>▣ 이황 독향(獨享) 서원</p>					
1	이산서원 (伊山書院)	경상도 영천	1573 (선조 6)	1574 (선조 7)	[주] 이황
2	덕곡서원 (德谷書院)	경상도 의령	1656 (효종 7)	1660 (현종 1)	[주] 이황
3	봉림서원 (鳳覽書院)	경상도 진보	1602 (선조 35)	1690 (숙종 16)	[주] 이황
4	남당서원2 (南塘書院)	충청도 제천	1580 (선조 13)	X	[주] 이황
<p>▣ 이황과 한국 유현 병향(並享) 서원</p>					
5	단암서원 (丹巖書院)	충청도 단양	1662 (현종 3)	1692 (숙종 18)	[주] 우탁, 이황
6	화암서원 (花巖書院)	충청도 괴산	1622 (광해군 14)	X	[주] 이황 [배] 허후, 박세무, 이문건, 노수신, 김제갑, 류근, 전유형, 이신의
7	정퇴서원 (靜退書院)	충청도 은양	1574 (선조 7)	X	[주] 조광조, 이황 [배] 맹희도, 홍가신, 조상우, 강백년, 조이후
8	인산서원 (仁山書院)	충청도 아산	1610 (광해군 2)	X	[주] 김광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배] 기준, 이지함, 홍가신, 이덕민, 박지계
9	경현서원 (景賢書院)	전라도 나주	1583 (선조 16)	1607 (선조 40)	[주] 김광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배] 김성일
10	죽림서원 (竹林書院)	전라도 여산	1626 (인조 4)	1665 (현종 6)	[주] 조광조, 이황, 이이, 성혼 [배] 김장생, 송시열
11	호계서원 (虎溪書院)	경상도 안동	1576 (선조 9)	1676 (숙종 2)	[주] 이황 [배] 류성룡, 김성일
12	도남서원 (道南書院)	경상도 상주	1606 (선조 39)	1677 (숙종 3)	[주] 정몽주, 김광필, 정여창, 이언적, 이황 [배] 노수신, 류성룡, 정경세
13	연경서원 (研經書院)	경상도 대구	1564 (명종 19)	1660 (현종 1)	[주] 이황 [배] 정구, 정경세

순서	서원명	지역	창건 연도	사액	봉향 인물
14	송학서원 (松鶴書院)	경상도 청송	1702 0(숙종 28)	X	[주] 이황 [배] 김성일, 장현광
15	육양서원 (郁陽書院)	경상도 풍기	1662 (현종 3)	X	[주] 이황 [배] 황준량
16	정산서원 (鼎山書院)	경상도 예천	1612 (광해군 4)	1677 (숙종 3)	[주] 이황 [배] 조목
17	남강서원 (南江書院)	경상도 영덕	1605 (선조 38)	X	[주] 이언적, 이황
18	고산서원 (孤山書院)	경상도 경산	1694 (숙종 20)	X	[주] 이황 [배] 정경세
19	도산서원 (陶山書院)	경상도 예안	1574 (선조 7)	1575 (선조 8)	[주] 이황 [중] 조목
20	영산서원 (英山書院)	경상도 영양	1655 (효종 6)	1694 (숙종 20)	[주] 이황 [배] 김성일
21	구계서원 (龜溪書院)	경상도 사천	1611 (광해군 3)	1676 (숙종 2)	[주] 이황 [배] 이정, 김덕함
22	문암서원 (文巖書院)	경상도 봉화	1611 (광해군 3)	1694 (숙종 20)	[주] 이황 [배] 조목
23	삼강서원 (三江書院)	경상도 용궁	1643 (인조 21)	X	[주] 정몽주, 이황 [배] 류성룡
24	백학서원 (白鶴書院)	경상도 신녕	1618 (광해군 10)	X	[주] 이황 [배] 황준량
25	문암서원 (文巖書院)	강원도 춘천	1610 (광해군 2)	1648 (인조 26)	[주] 김주, 이황 [배] 이정형, 조경
26	운전서원 (雲田書院)	함경도 함흥	1667 (현종 8)	1727 (영조 3)	[주] 정몽주, 조광조, 이황, 이이, 성혼 [배] 조한, 송시열, 민정중
27	청계서원 (淸溪書院)	함경도 강동	1672 (현종 13)	X	[주] 이황 [배] 조호익, 김육

주: 1) [주]: 주향(主享), [배]: 배향(配享), [중]: 종향(從享).

2) 이 표는 『증보문헌비고』에 수록된 순서(지역별)에 따라 정리한 것임.

봉향된 한국의 유현들 가운데 조광조를 주벽으로 모신 곳이 5곳으로 가장 많고, 정몽주(鄭夢周, 1337~1392), 김굉필(金宏弼, 1454~1504), 정여창(鄭汝昌, 1450~1504),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을 모신 곳이 각각 3곳으로 그다음이며, 우탁(禹倬, 1262~1342), 김주(金澍, 생물미상)를 모신 곳이 각각 1곳이다. 이황보다 후대 인물로는 이이와 성혼이 전라도 여산의 죽림서원과 함경도 함흥의 운전서원에 함께 주향으로 모셔져 있다. 한편, 이황을 주향으로 모신 27곳 서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도가 17곳으로 압도적이며, 충청도가 5곳, 전라도 3곳, 함경도 2곳, 강원도 1곳 순이다(표2 참조).

2. 이황 봉향 서원의 사제

이황을 주향으로 하는 서원 중에 사제(치제)가 행해진 곳으로는 경상도 예안의 도산서원, 전라도 여산의 죽림서원 그리고 경상도 사천의 구계서원 등 3곳 정도가 확인된다.²¹ 3곳 모두 사액될 때 사제(치제)가 행해졌지만,²² 도산서원은 이 외에도 9회가 더 행해져서 모두 10회의 사제(치제)가 행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²³ 특히 도산서원에는 1733년(영조 9)·1781년(정조 5)·

-
- 21 일반적으로 서원에 사액이 되면 응당 치제가 행해졌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김의환 역시 「영주 이산서원의 건립과 퇴계 이황 제향의 의미」, 『한국서원학보』 15(2022) 202쪽에서 이산서원의 사액 시기를 두고 1573년(선조 6)이라고 보는 견해와 1574년(선조 7)으로 보는 견해가 갈린다는 점을 제시한 뒤에 “사액 시기는 실록을 근거로 6년(1573)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다만 실제 선액 치제는 다음 해 봄에 거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여, 이산서원에서도 치제가 있었을 것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치제를 행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만을 다룬다.
- 22 죽림서원의 경우는 『息庵先生遺稿』(19) 「礪山竹林書院賜額致祭文」, 구계서원의 경우는 『龜巖先生文集』(2) 續集 「龜溪書院宣額時賜祭文【丙辰四月】」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도산서원의 경우는 관련 치제문을 확인할 수 없다.
- 23 채광수는 「서원의 특수 의례 종류와 실제: 追享禮·致祭禮·賜額禮를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0(2020) 210쪽에서 “도산서원의 치제는 1575년(선조 8) 8월 사액 때와 이황이 ‘文

1792년(정조 16) 사제(치제)가 행해졌을 때 작성된 3종의 『사제일기』가 소장되어 전한다. 이들 『사제일기』는 도산서원에서 행해진 사제(치제)를 기록한 것으로, 모든 서원에서 행해진 사제(치제)를 대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 서원에서 행해진 사제(치제)를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료이다. 이에 이들 자료 가운데 1733년과 1781년에 작성된 『사제일기』를 바탕으로, 당시 도산서원에서 행해진 사제(치제)의 개략적인 내용을 다음에 소개한다.

1) 1733년(영조 9) 『사제일기』

① 사제의 시행 배경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영조는 1733년 11월 19일²⁴ 주장에서 『예기』를

純' 시호를 받던 1576년(선조 9)에 2회, 그 뒤 8회가 더 시행되어 모두 10회에 걸쳐 시행되었다"라고 했으나 10회의 구체적인 연도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제현은 「영조와 정조의 서원 사제와 도산서원」, 『한국서원학보』 20(2025) 265쪽에서 “도산서원에 대한 치제는 모두 9회에 걸쳐 있었다. 연도는 1575년(선조 8), 1576년(선조 9), 1733년(영조 9), 1756년(영조 32), 1781년(정조 5), 1792년(정조 16), 1816년(순조 16), 1840년(헌종 6), 1854년(철종 5)이다”라고 했다. 채광수가 언급한 10회는 이제현이 제시한 9회에 1615년(광해군 7)에 행해진 것이 추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1615년 사제(치제)는 趙穆(1524~1606)을 도산서원 상덕사에 종향하면서 행해진 것으로, 『퇴계선생연보』 부록 권4, 「陶山書院致祭文」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치제문은 날짜가 “萬曆四十二年甲寅【光海六年】十二月二十七日”로 되어 있는데, 갑인년은 서기로 1614년이다. 그런데 『월천선생문집』에 수록된 『월천선생연보』의 마지막 ‘三十五年丁未正月丁卯’조의 소주에는 “甲寅十一月上丁 啓講從享于陶山書院 乙卯正月 朝廷遣禮官致祭”로 기록되어 있어서 1615년이라고 했다. 정리하자면, 1614년 11월에 조목의 종향이 계청되었고, 12월에 치제문이 제작되었으며, 1615년 1월에 치제가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 24 11월 19일은 음력 날짜이다. 이하에서 언급하는 모든 날짜는 별도의 표기를 하지 않아도 음력임을 밝혀 둔다.

강했다. 이날 경연에서 영조를 모셨던 한림 김한철(金漢喆, 1701~1759)²⁵은 한 달쯤 전에 『경종실록(景宗實錄)』과 『선조보감(宣祖寶鑑)』, 『숙종보감(肅宗寶鑑)』을 태백산사고에 봉안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는데,²⁶ 그때 보고 들은 것을 다음과 같이 임금에게 아뢰었다.²⁷

신이 사책(史冊)을 폭쇄(曝曬)하라는 명을 받들고 영남에 갔었는데, 선정 신 문순공 이황이 남긴 교화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아동과 주졸들도 모두 노선생(老先生)이라고 칭하고, 글자 하나 말 한마디도 사람들이 모두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²⁸

김한철의 말에 이어 참찬관 이광보(李匡輔, 1687~?)는 “안동과 예안 등의 고을은 아직도 이황의 향약이 남아 있어 예속이 여전하고 또 서원을 지키는 사람도 극진히 공경하고 존모한다”라고 했고, 시독관 오원(吳瑗, 1700~1740)도 “영남의 선비들은 지금까지도 이황을 ‘노선생’이라고 부르며 성을 부르지 않는 것이 마치 70명의 제자들이 공자를 부자(夫子)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도산은 바로 선정이 살았던 곳인데, 명묘조(明廟朝) 때에 그림으로 그려 올리게 하셨다”라는 고사도 함께 아뢰었다.²⁹ 이야기가 이렇게 전

25 翰林은 藝文館의 정7품 奉敎 2인, 정8품 待敎 2인, 정9품 檢閱 4인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로, 이들을 ‘八翰林’이라고 불렀다. 당시 김한철은 봉교로 재직 중이었다. 참고로 『승정원일기』의 관련 기록에서는 김한철의 직책이 ‘記事官’이라 기록되어 있다.

26 『英祖實錄』 9년(1733) 10월 5일, “知春秋金東弼 奉敎金漢喆奉安『景廟實錄』及『宣廟 肅廟寶鑑』於奉化太白山”.

27 이에 관한 기록은 『英祖實錄』에도 있지만 『承政院日記』의 기록에 그 경위가 훨씬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28 『英祖實錄』 9년(1733) 11월 19일, “行晝講 講《禮記》 命致祭于陶山書院 翰林金漢喆曰 臣奉曬史之命 往嶺南 先正臣文純公李滉遺化 至今猶存 兒童走卒皆稱老先生 隻字片言 人皆寶藏”.

29 『承政院日記』 英祖 9년(1733) 11월 19일, “匡輔曰 史官所達誠然矣 安東·禮安等邑 尚有李滉

개되자 김한철은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지난번에 성상께서 문성공 이이(李珣)에게 치제하신 것은 매우 성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팔방의 백성과 선비들이 누군들 흥기하지 않겠습니까? 하운데 문순공에게는 치제를 내리는 명이 없으니 영외(嶺外)의 선비들이 억울해하며 기대하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³⁰

그러자 이광보는 “영외의 선비들이 기대한다고 한 것은 문순공에게도 치제를 내려 주시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고, 오원도 “우리나라에서 유현이 많이 나왔지만, 그중에 이이와 이황의 도덕과 학문이 더욱 우뚝하다”라고 말을 보탰다.³¹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영조는 다음과 같이 명한다.

문성공은 『성학집요』를 강론하다가 감홍이 일어 치제하라고 한 것이다. 지금 사관과 승지, 유신 등이 아뢴 말을 들어 보니, 문순공이 끼친 교화가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한 지역의 백성과 선비들이 아직도 경모하고 숭봉하는 기풍이 있다고 하니 참으로 가상하며 자연히 감홍을 일으킨다. 선조의 고사에 따라 예안의 고택과 도산서원을 도신(道臣)에게 1부씩 그려 올리게 하고, 또 해조로 하여금 문성공의 예에 의거하여 치제케 함으로써 나의 존상하는 뜻을 나타내도록 하라.³²

之鄉約 而禮俗依然 且其守護書院者 極致其敬慕云矣 瑗曰 臣亦聞嶺南士子 至今稱李滉以老先生 不呼其姓 猶七十之誦夫子 … 所謂陶山 卽先正棲息之所 明廟朝至命圖 畫以進矣”.

30 『承政院日記』英祖 9년(1733) 11월 19일, “漢詰曰 向者聖上致祭於文成公李珣 甚盛舉也 八方民士 孰不興起 而文純公則姑無賜祭之命 嶺外之人 不無抑鬱想望之心矣”.

31 『承政院日記』英祖 9년(1733) 11월 19일, “匡輔曰 史官所達之意可知也 嶺人之想望云者 於文純公 亦望有賜祭之舉 而史官不敢直請賜祭 故所達如是矣 瑗曰 我朝儒賢輩出 而其中李珣·李滉道德學問 尤爲卓然矣”.

32 『承政院日記』英祖 9년(1733) 11월 19일, “上曰 文成公則因講聖學輯要 興感而致祭矣 今聞史官及承宣·儒臣等所達 文純公遺化 至今未泯 一方民士 尙有敬慕崇奉之風 誠爲嘉尙 自然興感

이렇게 하여 1733년 도산서원에서 치제를 거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이황에게 치제하라는 영조의 명이 내려지자, 김한철은 안동과 예안의 선비들이 이황의 언행을 수집하여 『퇴도언행록(退陶言行錄)』을 간행했으니 이것도 한 번 예람(睿覽)하여 볼 것을 다음과 같이 주청(奏請)했다.

성상께서 『성학집요』에 감흥을 일으켰다고 하시니, 신은 지극히 황송하오나 우러러 아될 말씀이 있습니다. 안동과 예안 두 고을의 선비들이 문순공의 언행과 유적을 모아서 책자로 만들고, 책의 이름을 『퇴도언행록』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고을의 판본에 상세하고 간략한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나 대의는 같습니다. 소신이 그 책을 인출해 왔는데 선현의 행적에 불만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성상께 한번 보여 드리고 싶었지만 외람되어 감히 바치지 못했습니다.³³

이 말은 들은 영조는 “어찌 사적으로 인출해 온 것을 바치겠느냐? 본도에 명해서 『퇴도언행록』 1건도 인출해 바치도록 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라고 하였다.³⁴

② 사제의 준비와 내용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도산서원에서는 1733년 12월 17일에 사제가 행해

矣 依先朝故事 禮安故宅及陶山書院 令道臣圖進一本 且令該曹 依文成公例致祭 以表予尊尙之意”.

33 『承政院日記』英祖 9년(1733) 11월 19일, “且聖上有興感聖學輯要之教 臣極爲惶悚而有所仰達矣 安東·禮安兩邑士人輩 搜聚文純公言行遺蹟 作爲冊子 名之曰退陶言行錄 兩邑板本 稍有詳略 而大意則同矣 小臣印得以來 先賢行蹟多有可觀 竊欲仰塵乙覽 而猥越不敢獻御矣”.

34 『承政院日記』英祖 9년(1733) 11월 19일, “上曰 何必以私自印來者 進之乎 其令本道 退陶言行錄一件 亦爲印進 可也”.

지게 되었다. 영조는 향과 제문을 제품으로 하사하고 홍문관 부수찬 정형복(鄭亨復, 1686~1769)을 예관으로 내려보냈다.

『일기』에 따르면, 도산서원에서 사제에 관한 명을 전달받은 것은 12월 6일이었다. 사제 12일 전이었기 때문에 날짜도 촉박한데 당시 동주(=산장)였던 권상일(權相一, 1679~1759)도 도산서원에 부재했다. 이런 상황에서 첫째 날(6일)에는 재임을 맡은 김보(金堡)와 김정주(金廷柱) 그리고 『퇴도언행록』을 올려야 하는 문제 때문에 간역유사(刊役有司)인 이태형(李台珩)과 이세관(李世觀)이 들어왔고, 그 이튿날(7일)에는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으며, 넷째 날(9일) 인근 사람들에게 관련 내용을 통고했다.

12월 10일, 산장 권상일이 도산서원으로 들어왔고, 11일부터 많은 인사들이 참여했으나, 경황이 없어서 그랬는지 『시도기』를 미처 작성하지 못했다고 『일기』에는 기록되어 있다.³⁵ 이렇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사제를 거행할 날짜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12일에 재임은 제의(祭儀)를 품정하는 문제로 예안현감을 만났고, 13일에 산장(권상일)은 사제를 거행할 의결의 초안을 만들었다. 14일에는 『퇴도언행록』을 간인하여 관에 보냈고,³⁶ 15일에는 예안현감을 만나 제의를 품의했다.³⁷ 사제 전날인 16일에 수백 명이 몰려들었고, 사제일

35 『賜祭日記』(1733), “癸丑十二月初六日 聞自朝家有致祭本院之命 而致祭日子在今月十七日 齋任金堡·金廷柱入來 刊役有司李台珩·李世觀以言行錄印出事亦入來 洞主前掌令權相一以在遠未及入來 初七日 齋任留在 鄉中人亦來會 初九日 發文通告于鄰近士林”.

36 이때 보낸 『퇴도언행록』은 1707년 권두경(1654~1725)에 의해 완성되어 1732년 안동에서 간행된 『退陶先生言行通錄』(8권 5책)의 문제점을 이수연(1693~1748)의 주도하에 수정·보완하여 1733년 도산서원에서 간행한 『퇴계선생언행록』(6권 3책)이다. 이황의 『언행록』에 관한 연구로는 김언중, 『퇴계선생언행록』 소고, 『연민학지』 4(1996); 정우락, 『퇴계언행록』의 형성 과정과 제자들의 ‘퇴계’ 인식, 『퇴계학논집』 17(2015) 등이 있다.

37 『賜祭日記』(1733), “初十日 山長入來 … 十一日 自此遠近人士蓋多往來 而時到未及記錄 十二日 齋任以祭儀稟定事 入見本官 十三日 山長草行祭儀節 十四日 印送言行錄于官家 自有印進之命故也 十五日 別定儒生李仁兼·李守恒稟議祭儀于本官”.

인 17일에는 700여 명이 참석했다.³⁸

17일 사제는 크게 3부로 진행되었다. 우선 사제를 상덕사(尙德祠)에 고하는 고사례(告事禮)를 묘시(5시~7시)에 행하고,³⁹ 진시(7시~9시)에는 예관이 임금이 하사한 향과 축문을 받들고 예안현감과 청하현감⁴⁰의 뒤를 따라 입장하면 원장과 제생들이 줄지어 서서 맞이하는 지영례(祗迎禮)를 행하고, 사시(9시~11시)에 사제를 본격적으로 봉행했다.⁴¹

③ 『일기』의 구성과 특징

1733년 사제를 거행할 때 제작된 『사제일기』는 임금이 내린 「사제문(賜祭文)」, 고유에 해당하는 「사제전고사(賜祭前告辭)」 그리고 사제를 봉행하는 순서를 기록한 「사제시홀기(賜祭時笏記)」가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그 뒤에는 도산서원에서 관으로부터 관련 사항을 전달받은 12월 6일부터 사제를 봉행한 17일까지, 12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날짜별로 기록한 「일기」가 실려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영조가 치제를 명하면서 ‘예안의 고택과 도산서원을 그림으로 그려서 올리라’고 함께 분부했던 내용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이 『일기』에는 빠져 있다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때 작성된 『사제일기』는 이후에 작성된 『사제일기』와 비교하면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략하다. 이는 사제를 100년이 넘도록 거행해보지 않다가 오랜만에 거

38 『賜祭日記』(1733), “十六日 朝食堂開座于典教堂及廟門外 遠近會員數百餘人 … 午後移座于雲影臺下 會員五百餘人 … 十七日 … 開座于雲影臺下 會員至七百餘人”.

39 원래 사제의 고유는 하루 전에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번만큼은 원체 날짜가 촉박해서 당일예 거행하게 되었다고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賜祭日記』(1733), “賜祭時告由 例在前一日 今番適值日期促迫 當日行事”.

40 당시 청하현감은 겸재 정선(1676~1759)이었다. 『承政院日記』英祖 9년(1733) 6월 9일, “○有政 … 鄭叡爲清河縣監”.

41 『賜祭日記』(1733), “十七日 卯時 行告事禮 … 辰時 本官及清河縣監鄭○來 禮官奉香祝隨後而來 院長及諸生序立祗迎如初 仍陪入 巳時 行事”.

행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날짜가 촉박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2) 1781년(정조 5) 『사제일기』⁴²

① 사제의 시행 배경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정조는 1781년 4월 23일에 다음과 같은 명을 내린다.

임금의 자리에 오른 이후로 미처 겨를이 없었으니, 내가 존모하고 경양하는 마음으로 겸연쩍고 부끄러운 것이 실로 깊다. 더구나 그곳을 그림으로 그려서 올리라고 명했던 고사를 따름에랴? 이제라도 거행하는 것이 더욱 마땅할 일이다. 경주의 옥산서원과 예안의 도산서원에 예관을 보내 치제하되, 제관과 사품은 몇 년 전 화양서원 치제⁴³의 예에 의거하라.⁴⁴

42 도산서원에서는 1733년(영조 9)과 1781년(정조 5) 사이인 1756년(영조 32)에 치제가 한 번 더 거행되었다. 『영조실록』에 따르면, 1755년 12월 14일에 영조는 상소와 함께 이황이 편찬한 『성현도학연원』을 바친 이황의 후손 이세택(1716~1777)을褒獎하면서 『성현도학연원』의 서문과 『성학십도』의 서문을 함께 친히 제출하는 한편, 도산서원에 치제했다[『英祖實錄』 31년(1755) 12월 14일, “校理李世澤上疏 進先正文純公 李滉所纂《聖賢道學淵源》上 褒答之 親製序文 並序《聖學十圖》 命嶺南道臣刊進 遺儒臣致祭陶山書院 賜世澤帽緡 世澤 滉之後 陶山 滉之俎豆所也”]. 이때 내려진 치제는 1756년 1월 18일에 거행되었고, 『사제일기』에는 이때 내려진 「사제문」만 수록되어 있을 뿐 다른 자료들은 없다. 참고로 『사제일기』(1781)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계축년(1733)과 병자년(1756)의 「사제문」과 「일기」·「홀기」를 함께 권수에 베껴 실었는데, 병자년(1756)은 「일기」는 없고 단지 「홀기」만 있었다. 그런데 그 「홀기」가 계축년(1733) 「홀기」와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중첩해서 쓰지 않았다[癸丑·丙子賜祭文及日記·勿記 膳諸卷首 而丙子則無日記 只有勿記 與癸丑 笏記別無異同 故茲不疊書爾”].

43 정조는 즉위년에 화양서원에 치제했다. 『正祖實錄』 즉위년(1776) 8월 23일 기사 참조.

44 『正祖實錄』 5년(1781) 4월 23일, “敎曰 御極以後 訖未遑爲 以予尊慕景仰之心 慊愧實深 沉遵故事有圖上基地之命 及今舉行 尤極允當 慶州玉山書院·禮安陶山書院 遣官致祭 祭官祀品 依

흥미로운 점은 1781년 4월에 이언적과 이황에게 치제하라고 명을 내린 정조는 3개월 뒤인 7월에 이이에게도 치제하라는 명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이는 1733년 이이에게 먼저 치제를 명했던 영조가 나중에 도산서원에도 치제를 내렸던 일과 대조적이다.⁴⁵ 여기에는 이황에 대한 정조의 순수한 존모와 경양의 마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고도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다.⁴⁶

정조가 영남 지역 선유들을 존숭하는 뜻에서 명한 1781년 사제는 도산서원 단독이 아니라 옥산서원과 함께 하사되었다. 정조는 승정원 부승지 이양정(李養鼎, 1739~1784)을 예관으로 보냈고, 옥산서원의 사제는 1781년 5월 18일, 도산서원의 사제는 나흘 뒤인 5월 22일에 각각 거행되었다.

이번 사제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특징은, 정조가 옥산서원과 도산서원을 각각 그림으로 그려서 진상하라고 한 대목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종은 이황이 살았던 도산(陶山)을 그림으로 그려 바치라는 명령을 했고, 1733년에 영조 역시 도산서원에 치제를 명하면서 도산서원을 그림으로 그려서 바치라는 명을 내렸다. 하지만 그러한 명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 그에 비해 1781년 『사제일기』에는 도산서원 주변을 그림으로 그린 관련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게 남아 있어서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짐작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⁴⁷

年前華陽書院致祭時例”. 『사제일기』에도 사제의 의절을 화양서원 사제의 예에 의하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賜祭日記』(1781), “關文內 賜祭儀節 依丙申年華陽洞賜祭例云”.

45 『正祖實錄』 5년(1781) 7월 5일 기사 참조. 단, 이때 정조는 이이의 치제를 소헌서원에 내렸다가 이튿날 자운서원으로 다시 내렸다.

46 도산서원에 치제한 정조의 정치적 의도에 관해서는 이제현, 앞의 글(2025) 참조.

47 『사제일기』에 따르면, 정조는 옥산서원과 도산서원의 그림을 그려서 병풍으로 제작해 올리라고 명했다. 『賜祭日記』(1781), “上特命賜祭于本院及玉山書院 且命圖 畫兩院 作屏以進”.

② 사제의 준비와 내용

『일기』에 따르면 도산서원에서 사제에 관한 명을 전달받은 것은 5월 1일이었다. 이튿날 재임 김정옥(金廷玉)과 이제흠(李濟翕)은 향중에 글을 띄워 3일에 당회를 개최한다고 통고했고, 그다음 날인 3일에 당회를 열고 몇 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우선, 산장으로 있다가 사직 단자(辭單)를 제출했던 이귀응(李龜應, 1729~1789, 이황의 8대 종손)을 다시 산장으로 모실 것을 결의했고, 그날 저녁에 산장이 도산서원으로 들어왔다. 다음으로 기존의 재임을 교체하고, 새로 도판유사(都辦有司)를 선임했다. 한편, 경상도 일대에 사제 날짜를 통고하면서 물질적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⁴⁸

5월 6일, 도산서원 그림의 草本이 완성되었다. 도산서원에서는 앞선 당회 때 “화사(畫師)가 나중에 도산서원을 그릴 때 빠뜨리는 것이 있을까 염려”하여 미리 유생 이진악(李鎭岳)과 이귀복(李龜福)을 시켜 초본을 그리게 했는데, 이날 그 초본이 완성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림에 등장하는 여러 장소의 이름들도 빠짐없이 그림에 써 넣었다. 실제로 이 초본은 나중에 화사가 지형을 이해하고 그림을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⁴⁹ 그런가 하면 미처 간인하지 못하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오던 1733년(계축, 영조 9)과 1756년(병자, 영조 32) 사제의 「사제문」을 베껴 써서 책으로 만들었다.⁵⁰

5월 9일, 옥산서원으로부터 사제의 의절과 기타 절차에 관해 문의하는 편

48 『賜祭日記』(1781), “初二日 齋任金廷玉·李濟翕發文通告鄉中 定堂會于初三日 初三日 堂會 前縣監李守貞·幼學李世源·前縣監李世聞 以山長前郡守李龜應前已辭單收議堂中 定送勸起儒生 山長不得已夕後入來 兩齋任皆有故辭遜 代李鎭東·金良佐 ○望定金應鐸·李龜報爲都辦有司 是日發文通告賜祭日期于道內 且以本院物力凋殘 並及求助之意”.

49 『賜祭日記』(1781), “初六日 前日堂會時 議令儒生李鎭岳·李龜福草 畫本 蓋慮 畫師之或有疎漏處 而先試以待計也 至是 畫草成 仍逐處書填名號”; “十六日 … 食後 畫師始草 畫本 而頻閱儒生所草本 以爲有助於領會山勢云 … 完成 畫本 不施彩色 純用濃墨 諸處命名 一依儒生本題書”.

50 『賜祭日記』(1781), “初六日 … ○癸丑丙子賜祭文未及刊印 而只以元本藏奉 故是日謄書于一冊子”.

지를 들고 사람이 왔다. 다음날 산장은 홀기와 1756년의 예폐규례(禮幣規例)를 정리해서 편지와 함께 옥산서원으로 보냈다.⁵¹ 13일에는 본읍으로부터 사제의 집사관을 분정한 내용이 전달되었고, 14일에는 역시 본읍으로부터 화사가 곧 도착한다는 소식과 함께 일부 집사관이 교체되었다는 내용이 전달되었다.⁵²

5월 15일, 옥산서원을 그리고 어제 예안에 도착한 화사가 아침에 외산(外山)의 형세를 살펴본 뒤 천연대(天淵臺)를 거쳐 도산서원에 도착했다. 화사는 당시 그림으로 명성이 있었던 동래부 소속의 화원 변박(卞璞, 생몰미상)이었다. 오후에 화사는 산천의 형국과 용맥이 어디로부터 흘러왔는지 등을 살펴 보기 위해 계상(溪上)으로 가서 저물녘에 도산서원의 주산(主山)을 넘어서 돌아왔다. 16일에 그림의 초본은 완성되었으며, 크기는 대장지(大壯紙) 12폭이었다. 정조는 그림을 병풍으로 만들어 올리라고 했는데 지방에서는 병풍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병풍 제작비 몫으로 400민(緡)을 규장각으로 보내서 만들어 올려야 한다고 『일기』에는 기록되어 있다.⁵³

5월 19일, 성주(예안현감)가 “제물 중에 배(生梨)는 철이 아니어서 구하기 어렵다”며 계절 과일(時果)로 대체하자는 글을 보내왔다. 도산서원에서는 “함부로 결정할 수 없으니, 내일 도집례(都執禮)를 차출해서 상의한 후 알려 주겠다”라고 회신했다. 20일 이세원(李世源)을 도집례로 결정했고, 21일에 도

51 『賜祭日記』(1781), “初九日 玉山書院典伴以祭儀及凡節商量事 貽書來問 初十日 玉山伴還 山長在家修答 膽出笏記及丙子年禮幣規例以送”.

52 『賜祭日記』(1781), “十三日 … ○本邑禮吏告目以賜祭執事官分定關文來畧 大祝豐基郡守 祝史榮川郡守 贊者禮安縣監 謁者英陽縣監 都預差眞寶縣監”; “十四日 … ○禮吏告目 畫師將到 大祝豐基代寧海府使 都預差眞寶代龍宮縣監”.

53 『賜祭日記』(1781), “十五日 朝 山長入來 食後 禮吏來告 營裨一人及 畫師一人自玉山昨日來宿本縣 城主方率來愛日堂 點得外山形勢云 俄而歷天淵臺入院 畫師 卽東萊居卞璞 以畫頗有時名云 午後 畫師往溪上 城主及齋任金良佐偕行 日暮 踰書院主山而來 爲觀山川局勢及龍脈之從來也”.

집례는 각 분야의 집사들을 차정했다. 그리고 21일 진설할 때 배 대신 계절 과일을 올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⁵⁴

5월 17일, 수십 명이 도산서원에 모인 가운데 상덕사에 모셔진 정위(이황)과 종사위(조목)에게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인지를 두고 의견 대립이 있었다. 그 발단은 앞선 두 차례의 사제 중에 1733년(계축)과 1756년(병자)의 전례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1733년 사제의 제문에서는 그 대상을 정위만 명시한 데 비해,⁵⁵ 1756년 사제의 제문에서는 정위와 종사위 모두 명시했다.⁵⁶ 그런데다 1733년 사제에서는 정위(이황)에는 연전삼작(連奠三爵)을 올리고, 종사위에는 단작(單爵)만 올렸고, 1756년에도 똑같이 했다. 즉, 사제의 대상이 정위만이나 정위와 종사위 함께이나 하는 차이가 나는데, 술을 올리는 의식은 똑같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논변이 없을 수 없었다.⁵⁷

이때 제기되었던 주장은 세 가지다. 첫째는, 제문에서 원위(=정위)만 거론했다면 종사위도 함께 제사 지내는 것은 부당하며, 종사위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면 사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 영향이 가는 것이 미안하니 정위를 전교당(典敎堂)으로 모시고 나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제문에서 비록 종사위까지 언급했다 하더라도 마땅히 원위와 종사위를 모두 모시고 나와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

54 『賜祭日記』(1781), “十九日 ○城主致書 以祭物中生梨非時難得 議於士林 欲代以時果 而會中不敢擅決 以明日差出都執禮議報之意 答之”; “二十日 山長入來 望定都執禮幼學李世源 … ○”; “二十一日 … ○都執禮差定執事 奉香李天燮 … ○典祀官監封祭物於典祀廳 生梨代以時果”.

55 『賜祭日記』(1733) [賜祭文], “雍正十一年癸丑 十二月 十七日 國王遣臣弘文館副修撰鄭亨復 諭祭于贈領議政文純公李[]之靈 …”.

56 『賜祭日記』(1756) [賜祭文], “乾隆二十一年歲次丙子 正月 十八日 國王遣臣弘文館副修撰李錫祥 諭祭于贈領議政文純公李[]·故工曹參判趙[]之靈 …”.

57 『賜祭日記』(1781), “十七日 士林數十餘員入來 相議行祀儀節 癸丑年則只有祭元位之命 丙子年則并及從祀位 前後儀節似不相同 而癸丑笏記有從祀位單奠之節 與丙子笏記無異 未知其時何所據而然 以此不無論辨”.

더라도 불가할 것은 없다면, 제문에서 혹시 종사위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원위와 종사위를 모시고 나오는 것은 부당하며, 함께 제사만 지내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이 세 주장이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추후 예관 및 도회와 상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⁵⁸

그리하여 21일에 사제관(예관) 이양정이 옥산서원의 사제를 마치고 예안현에 도착하자, 도산서원에서는 전 현감 이세문(李世聞)과 생원 이세윤(李世胤)을 보내 의절에 관해 상의했다. 저녁이 되어 돌아온 이들은 “연시(延諡)를 할 때 맡고는 신주를 내와 맨땅에 모시는 예는 없다”라는 말과 “제문에서 종사위까지 언급했으므로 1756년의 의절에 따른다”라는 말을 전했고, 도산서원에서는 비로소 이를 홀기에 정확하게 기록했다.⁵⁹ 이로써 도산서원 사제의 정식 하나가 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5월 21일, 아침에 고유를 위한 집사를 분정하고, 식후에 고유례를 행했다. 지난 1733년 사제 때는 날짜가 촉박해서 사제 당일에 고유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를 시정해서 하루 전날 행했다. 한편, 제물이 서원에 도착하면 유생들이 이를 맞이하는 지영(祇迎)을 해야 하는데, 전사관(典祀官)이 전사청(典祀廳)에서 감봉(監封)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영례를 생략한 채 곧장 운반한 것에 대해 『일기』는 안타까움을 표했다.⁶⁰

5월 22일, 새벽부터 도산서원에서는 사제를 거행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했

58 『賜祭日記』(1781), “十七日 … 或以爲 祭文中若只舉元位 則似不當并祭從祀位 不祭從祀位 則廟內行祀之際 恐涉未安 移奉正位于典教堂 行事似可 云云 或以爲 祭文雖并及從祀位 亦當并爲移奉行事 云云 或以爲 廟內行事 恐無不可 祭文雖或不及從祀位 不當移奉元位 亦不當移奉從祀位 只不并祭而已 三說矛盾 不得歸一 姑待禮官及道會 爲議處計”.

59 『賜祭日記』(1781), “二十一日 … ○賜祭官左副承旨李養鼎自玉山到本縣 自會中定送前縣監李世聞·生員李世胤 議行事儀節 … ○夕後 前縣監李世聞等見禮官而歸 聞禮官言 延諡外 無出主移奉地坐等禮 且祭文中并及從祀位云 故儀節以丙子例議定 始正書笏記”.

60 『賜祭日記』(1781), “二十一日 … ○以告由事分定執事儒生 執禮金城 告由文製述李世胤·李龜福 祝金圭 謁者李龜敘 奉香金一憲 奉醴金處福 ○食後行告由[告由文見上]”.

다. 가장 먼저 임금이 내린 향과 축문을 맞이하는 지영 의식이 2,5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인 가운데 행해졌다. 이때 산장과 전직 관료들은 모대(帽帶)에 장복(章服)을 입고 북향을 했고, 도집례와 집사 유생들은 건복(巾服)을 입고 남향을 했다. 이 밖에 2,500명이 넘는 일반 참가자들 가운데 건복을 갖춰 입은 사람 수백 명만 지영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먼 곳에서 일부러 왔는데 건복을 갖춰 입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영이나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⁶¹ 그래서 건복을 갖춰 입지 못한 참가자들을 건복을 입은 사람들 왼쪽에 앉도록 했다.⁶²

동이 틀 무렵(平明) 사당 안에 진설을 시작했고, 묘시(5시~7시)가 되자 홍산(紅傘)·보개(寶蓋)·부월(斧鉞)·고취(鼓吹)가 향과 축문을 인도해서 도착했다. 이는 1733년이나 1756년 사제에는 없었던 의식이다. 향과 축문을 막차에 봉안한 뒤 예관은 자신의 막차로 갔다. 대축 이하 집사관이 향과 축문을 대문 안으로 지영하고, 도집례가 대축을 데리고 사당에 들어가 진설한 것을 점시한 다음 외정(外庭)으로 왔다. 이후 모든 집사는 뜰의 동쪽에 서고, 산장과 전직 관료는 뜰의 서쪽에 서고, 그 외 참가자들은 건복을 입었는지에 상관 없이 외정에 서되 건복을 입은 자가 앞줄에 섰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예관이 향과 축문을 모시고 정문을 통해 들어오고, 이후 사제가 의절에 따라 거행되었다.

61 이렇게 최소한 건복을 갖춰 입은 사람만 지영과 제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은 전날(21일) 예관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일기』에서는 당장에 건복을 준비할 수도 없는데 예관이 이렇게 지시한 것에 대해 걱정을 표했다. 『賜祭日記』(1781), “二十一日 … ○禮官將以明日食前行事 而前衛朝士則章服帽帶 儒生則巾服 然後乃可祇迎參祀云 會中巾服之人無多 而倉卒勢難造得 祇迎參祀之際 將未免苟簡埋沒之弊 可嘆”.

62 『賜祭日記』(1781), “二十二日 晨 以香祝祇迎次 雲影臺下夾道開坐 以西爲上 山長及前衛朝士 具帽帶章服 北向作頭; 都執禮及執事儒生具巾服 南向作頭 凡具巾服者分坐其次 而只是數百餘人 祇迎之沒樣既甚 可悶 許多無巾服之員 委來遠地 將不得參觀盛禮 亦極落莫 故議令序坐于巾服者之左 會中 凡二千五百餘人”.

사제를 마친 다음 임금이 내린 제문은 마땅히 태워야 하지만, 1733년과 1756년의 전례에 따라 서원에 소장하도록 했다.

③ 『일기』의 구성과 특징

1781년 제작된 『사제일기』는 이전에 제작된 『사제일기』보다 분량도 많고 내용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사제일기』(1781)에는 임금이 내린 「사제문」과 사제 하루 전에 행하는 고유례의 「고유문(告由文)」 그리고 「사제시홀기(賜祭時笏記)」, 「진설도(陳設圖)」, 「고사시홀기(告辭時笏記)」가 앞에 차례로 수록되어 있고, 그 뒤에 5월 1일부터 22일까지 과정을 기록한 『사제시일기』가 실려 있고, 마지막으로 예안현과 예안의 향교 및 서원 그리고 도내의 여러 서원에서 물질적·금전적으로 후원한 내용을 부록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1781년 사제에는 지난 1733년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5월 20일에는 60명 정도 모였는데, 21일 낮에는 600여 명, 저녁에는 1,400여 명이 모였으며, 사제 당일인 22일에는 2,500여 명이 모였다고 『일기』에는 기록되어 있다.⁶³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 시끄럽고 무질서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의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도 『일기』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

모인 인원이 600여 명이나 되었고 원근의 유생들이 속속 도착하니 좌중이 몹시 소란스러웠다. 공사원이 정좌유사(定坐有司)로 이택순(李宅淳)·김진옥(金振玉)·이귀협(李龜協)·금광윤(琴光胤)을 차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좌하게 하였으나 끝내 질서를 잡을 수 없었다.⁶⁴

63 『賜祭日記』(1781), “二十日 … ○是日 會員六十餘人”; “二十一日 … ○午食堂開坐於雲影臺下 … 會員六百餘人 … ○夕食堂仍又開坐於雲影臺下 會員一千四百餘人”.

64 『賜祭日記』(1781), “二十一日 … ○ … 會員六百餘人 而遠近儒生陸續迫到 坐中擾甚 公事員差

한편,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다 보니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예를 들면, 사제 하루 전날 일모 후에 예행연습에 해당하는 습례(習禮)를 하려고 했는데, 정작 집사 유생들은 도산서원이 이들의 잠자리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좁아서 이미 인근의 다른 마을로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⁶⁵ 또한 식사에 사용할 그릇류와 밥상도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아 애를 먹기도 했다.⁶⁶

IV. 맺음말

조선시대에 세워진 서원이나 영당 가운데 주회를 봉향한 서원은 20곳이고 영당은 5곳으로, 모두 25곳이다. 이들 가운데 주회만을 단독으로 봉향한 서원이 2곳이고, 주회와 다른 중국의 유현을 함께 봉향한 서원이 3곳이며, 나머지 20곳은 주회를 주벽으로 하고 한국의 유현들을 배향한 서원들이다. 그 가운데 주회와 이항을 함께 봉향한 곳은 4곳이다. 한편, 이들 서원과 영당을 지역별로 분류하면 황해도가 10곳으로 월등하게 많고 그다음이 7곳인 충청도다. 이들 서원이나 영당을 검토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주회를 봉향한 서원은 주회의 생장이나 가계 또는 임관 및 사적과 관련이 있는 지명을 가진 곳에 건립되었다. 둘째, 이들 서원이나 영당은 학파적으로는 율곡학과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지역적으로는 기호 지역에 집중되

出定坐有司李宅淳·金振玉·李龜協·琴光胤 使之定坐 而終不能整齊”.

65 『賜祭日記』(1781), “二十一日 … ○日暮後 欲爲習禮 而執事儒生以院底狹窄 不得盡容 已各散去他村 習禮未免權停 可嘆”.

66 『賜祭日記』(1781), “二十一日 … 且器皿以前例 請于本官使傍近洞民及寺刹待令 官家許以五百床器皿分定矣 色吏只以二百餘床來待 器皿有司雖使下人收聚教院床器 而厥數亦不多 以此多有排床窘束之弊 遂論報官家請加督以送 仍治色吏罪”.

어 있다. 셋째, 주회를 주벽으로 모신 서원이나 영당 가운데 대부분이 율곡학파의 인물들을 배향하고 있다. 주회를 봉향한 서원 중에 사제(치제)를 봉향한 곳은 4곳 정도가 확인된다. 특이한 것은 주회만을 단독으로 봉향한 서원 중에 치제가 하사된 곳이 없다는 점이다. 그것은 아마도 주회가 성균관이나 각 지방의 향교에 모셔져 있어서 석전을 봉향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이황을 봉향한 서원은 모두 27곳으로, 주회를 봉향한 서원이나 영당을 합한 25곳보다 많다. 이 27곳에 앞서 살펴본 주회를 주벽으로 모신 서원에 이황을 배향한 4곳을 더하면 모두 31곳으로 늘어난다. 27곳의 서원 가운데 이황만을 단독으로 봉향한 곳은 4곳이고, 나머지 23곳은 이황과 다른 한국의 유현들을 함께 봉향한 곳들이다. 이들 23곳 가운데 이황만을 주벽으로 하는 서원은 13곳이고, 다른 유현들과 함께 주향으로 모셔진 곳은 10곳이다. 한편, 이황을 주향으로 모신 27곳 서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도가 17곳으로 압도적이며, 충청도가 5곳, 전라도 3곳, 함경도 2곳, 강원도 1곳 순이다. 이황을 주향으로 하는 서원 중에 사제(치제)가 행해진 곳으로는 경상도 예안의 도산서원, 전라도 여산의 죽림서원 그리고 경상도 사천의 구계서원 등 3곳 정도가 확인된다. 3곳 모두 사액될 때 사제(치제)가 행해졌지만, 도산서원은 이외에도 9회가 더 행해져서 모두 10회의 사제(치제)가 행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도산서원에는 1733년(영조 9)·1781년(정조 5)·1792년(정조 16) 사제(치제)가 행해졌을 때 작성된 3종의 『사제일기』가 소장되어 전한다. 이들 『사제일기』는 한국 서원에서 행해진 사제(치제)를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英祖實錄』,
『正祖實錄』,
『日省錄』,
『承政院日記』,
『春官通考』,
『輿地圖書』,
『內閣日曆』,
『增補文獻備考』,
『退溪先生年譜』,
『月川先生年譜』,
『賜祭日記』(1733, 陶山書院).
『賜祭日記』(1781, 陶山書院).
正祖, 『弘齋全書』.
李楨, 『龜巖先生文集』.
金錫胄, 『息庵先生遺稿』.
朴泰淳, 『東溪集』.
李觀命, 『屏山集』.
李德壽, 『西堂私載』.
李肯翊, 『燃藜室記述』.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崔益鉉, 『勉菴先生文集』.
『薊山紀程』.

2. 논저

- 김언중, 「『퇴계선생언행록』 소고」, 『연민학지』 4, 1996, 69~98쪽.
김의환, 「영주 伊山書院의 건립과 퇴계 이황 제향의 의미」, 『한국서원학보』 15, 2022, 179~224쪽.

- 이경동, 「조선시대 해주 소현서원의 운영과 위상」, 『한국사상사학』 61, 2019, 241~286쪽.
- 이병훈, 「퇴계 제향 서원의 건립 추이와 위상 변화」, 『민족문화논총』 91, 2025, 189~224쪽.
- 이제현, 「영조와 정조의 서원 賜祭와 도산서원」, 『한국서원학보』 20, 2025, 263~296쪽.
- 정우락, 「『퇴계인행록』의 형성 과정과 제자들의 ‘퇴계’ 인식」, 『퇴계학논집』 17, 2015, 179~222쪽.
- 채광수, 「서원의 특수 의례 종류와 실제: 追享禮·致祭禮·賜額禮를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0, 2020, 201~225쪽.

3. 기타

- 송의호, 「[선비 정신의 미학(49)] 거례의 스승 율곡 이이」, 《월간중앙》, 2020년 3월 31일.

국문초록

조선에서 주희를 봉향한 서원과 영당은 모두 25곳이고, 이황을 봉향한 서원은 31곳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주희와 이황을 함께 봉향한 곳은 4곳이다. 주희를 봉향한 서원과 영당을 지역별로 분류하면 황해도가 10곳으로 월등하게 많고 그 다음이 7곳인 충청도다. 주희를 봉향한 서원은 주희의 생장이나 가계 또는 임관 및 사적과 관련이 있는 지명을 가진 곳에 많이 건립되었고, 학파적으로는 율곡학파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기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주희를 봉향한 서원 중에 사제(치제)를 봉행한 곳은 4곳 정도가 확인된다. 특이한 것은 주희만을 단독으로 봉향한 서원 중에 치제가 하사된 곳이 없다는 점인데, 이는 아마도 주희가 문묘에 모셔져 있어서 석전을 봉행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이황을 주향으로 모신 27곳 서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도가 17곳으로 압도적이며, 충청도가 5곳, 전라도 3곳, 함경도 2곳, 강원도 1곳 순이다. 이황을 주향으로 하는 서원 중에 사제(치제)가 행해진 곳으로는 도산서원 이외에 3곳 정도가 더 확인된다. 하지만 이들 3곳은 사액 치제가 유일한 데 비해 도산서원은 사액 치제 이외에도 9회가 더 행해져서 모두 10회의 사제(치제)가 행해졌다. 그렇다 보니 도산서원에는 3종의 『사제일기』가 소장되어 전하는데, 이는 한국 서원에서 행해진 사제(치제)를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투고일 2026. 1. 4.

심사일 2026. 1. 28.

게재 확정일 2026. 2. 25.

주제어(keywords) 주희(Zhu Xi), 이황(Yi Hwang), 서원(seowon), 사제(saje: the rites bestowed by the king), 『사제일기』(*Saje Diary*)

Abstract

The Seowon Shere Rites are Performed for Zhu Xi and Yi Hwang, and the Rites Bestowed by the King (Saje)

Han, Jaehoon

Joseon has 25 seowon and yeongdang (memorial halls) dedicated to Zhu Xi, while 31 are dedicated to Yi Hwang. Among these, rites are performed jointly in four sites for Zhu Xi and Yi Hwang. When classifying seowon or yeongdang dedicated to ancestral spirits by region, Hwanghae Province has by far the largest number, with 10 sites, followed by Chungcheong Province with 7. Seowon dedicated to Zhu Xi were predominantly established in locations bearing place names associated with him. Academically, they are closely linked to the Yulgok School, and geographically, they are concentrated in the Giho region. Of the Seowon dedicated to Zhu Xi, approximately four sites are confirmed to have performed saje (rites bestowed by the king). What is unusual is that among the seowon dedicated exclusively to Zhu Xi, none received saje. This is likely because Zhu Xi is enshrined in the Munmyo (Confucian temple), where the state rites of worship are performed.

Meanwhile, a regional analysis of the 27 Seowon that enshrined Yi Hwang as their principal deity reveals that Gyeongsang Province overwhelmingly leads with 17 sites, followed by Chungcheong Province with 5, Jeolla Province with 3, Hamgyeong Province with 2, and Gangwon Province with 1. Of the Seowon dedicated to Yi Hwang, three additional sites, besides Dosan Seowon, have been confirmed to have performed saje (the rites bestowed by the king). However, while these three sites conducted only the single ritual associated with the granting of state-recognized designations (saaeg), Dosan Seowon conducted nine additional rituals, for a total of ten. Consequently, Dosan Seowon preserves three types of saje diaries documenting the circumstances of these rituals. These diary materials hold significant importance for related research, as they provide empirical evidence of the practice of Saje at Korean Seowon.